

투데이 칼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보며

지난 11일 지켜본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주제 아래,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이날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 4년 9개월을 '도약과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굳건한 의지를 다짐 강조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국민주권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는 이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 모두가 큰 기대감 속에 그의 리더십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 100일은 이 대통령의 표현대로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으며, 민주주의, 외교 안보, 민생 경제를 비롯해 '망가진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날들이었다.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마음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해 왔다는 이 대통령의 소회는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리려는 대통령의 진심을 느끼게 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긴급 심폐소생술이 필요했던 우리 경제에 신속한 추가 경제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 만 호
본보 정치부장

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마중물 노력 덕분에 소비심리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각종 경기지표 또한 상승세로 반전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2,400을 오르내리던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훌쩍 넘어서고 주식 시장 총액이 사상 처음 3,0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과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경제 안정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외교 분야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다"고 이 대통령은 회고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을 더욱 높이고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

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당당한 실용 외교를 통해 세계 속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굳건하게 지켜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설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 된 국민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었다'는 고백처럼, 과거의 어려움과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을 이끌어 안정적인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은 전 북도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

뤄낼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힌 이 대통령에게 우리 전북도민들은 큰 기대를 갖게 된다.

또한 기반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여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는 약속은,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을 품게 한다.

전북도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의 정치로 국가적 난제들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발전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란으로 흐트러진 혼란과 갈등을 넘어 회복과 통합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는, 국민 모두가 바라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서, 우리 대한국민들의 굳건한 지력을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는 이 대통령의 다짐은 온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도 남는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한마음을 합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동참하며 힘을 모아, 우리 공동체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은, 지금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한마음을 합쳐서 국가 경제 발전에 매진해야 할 때다.

사설

‘베테랑 정통 외교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전남 장흥 출신 위성락(71) 국가안보실장은 1954년생으로 외교부 출신의 대표적 북미·북핵통으로 꼽힌다.

1979년 외무부에 입부한 뒤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베테랑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북핵 수석대표인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러시아 대사를 역임하며 '4강 외교'에 풍부한 경험을 지녔다.

22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후 외교·안보 공약과 정책을 설계했다. 20대 대선 당시에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지휘하는 실용외교위원장을 맡았다.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동북아영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 안보 분야의 풍부한 정

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용외교, 첨단 국방,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 실장은 남성고·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13회 △주러시아대사관 1등 서기관 △외무부 동구과장 △대통령비서실 과장 △주미 참사관 △외교부 북미국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조정관 △주러시아 대사 △주미 정무공사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러시아대사를 지낸 경력이 있다.

한편 위 실장은 장흥위씨(長興魏氏) 후손이다. 시조 위경(魏鏡)은 중국 당나라 관서 출신 사람으로 신라 선덕여왕이 당나라 태종에게 도예지사를 청하자 보내준 8화사 중의 한 사람이다. 신라 말에 대각관 시중을 지낸 위창주를 증시조로 하고 1세 조상으로 하고 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우수시설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4월 17일 '2024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주 평화사회복지관, 전주금암노인복지관, 전주꽃밭정이노인복지관 등이 각각 '우수시설'로 선정됐다.

전북 도내 복지 시설들이 전국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반면 일부 복지관은 개선 시설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됐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의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을 포함한 전국 527개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시설 환경, 재정 및 조직 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 권리 등 5개 영역으로 나누었다. 총점에 따라 5등급(A~F등급)으로 평가됐다.

전국적으로 상위 5%에 해당

하는 우수 시설 사회복지관 16곳과 노인복지관 13곳, 개선 시설 사회복지관 6곳과 노인복지관 8곳에는 포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전북도는 이번 평가에서 총 2450만원의 포상금을 확보했다. 전주평화사회복지관, 전주금암노인복지관, 전주꽃밭정이노인복지관은 각각 700만원씩을 수여받아 2회 연속 A등급을 기록했다.

반면 일부 복지관은 A등급을 받았으나 개선 시설로 선정돼 35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전북의 복지 시설들이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 실현에 더욱 힘을 기울이라고 밝혔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명배우 로버트 레드포드 추모



16일(현지 시간) 미 유타주 선댄스에서 시민들이 선댄스 영화제 창립자인 배우 로버트 레드포드를 기리는 추모소에 헌화한 후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할리우드 명배우 로버트 레드포드가 16일 캘리포니아주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고인의 대변인이 밝혔다. 향년 89세.

트럼프 방문 반대하는 영국 시위대



16일(현지 시간) 영국 윈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문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각종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